

광주시, 군공항 이전부지 물색 직접 나선다

복지 향상 등 4500억 지원 외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市, '지자부진' 수원시 반면교사 삼아 지자체 설득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타당성 현지 조사결과 '적정' 평가를 내림에 따라 광주시가 이전 부지 물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전 후보지 선정은 절차상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광주시가 직접 나서 후보지를 물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의 예비 이번 후보지 발표만 기다리다 이전 사업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광주시의 의지로 풀이된다.

군 공항 시설은 대표적인 납비시설로 각 인대 있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쉽지 않아

절차상 주민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수원공항이 적정 평가를 받은 뒤 이전 예상후보지로 거론된 지자체가 반발하는 등 후보지 선정이 최대 걸림돌이 되면서 이전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지난해 6월 군 공항 이전 타당성 승인을 받은 뒤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해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은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만 기다렸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국방부는 지역 반발 등 때문에 예비후보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가 나서 이 부분을 도와주

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자치단체 등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비 후보지를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광주시가 이전 후보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설득 등을 해 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따르면 이전 후보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주민의 복지향상과 소음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음완충지역 매입과 이주대책 지원, 소음피해보상 지원 등이 있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복지시설 지원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소득증대 시설 지원, 지역개발계획 지원 등도 이뤄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전 후보지에 지원하는 예산이 4500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 지원 외에 해당 지역에 필요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조만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여는 한편, 오는 10월 발주할 연구용역에 후보지 주변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국방부와 함께 오는 2017년까지 새로운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새로운 군 공항 건설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투표, 이전부지 선정 심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이전·지원사업이 진행된다.

광주시는 내년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고, 현 공항 부지에는 2025년까지 신도시인 가칭 솔마루시대를 조성하기로 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계 하천·호수 학술대회 2020년 광주서 열린다

市, 대회 유치 성공

대한민국서 첫 개최

광주시는 한국하천호수학회(회장 주지재)와 함께 2020년에 열리는 '제35차 세계 하천·호수·습지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Limnology) 학술대회'를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제33차 대회에서 33명으로 구성된 각국 대표단의 투표를 거쳐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개최지 경쟁에는 호주 브리즈번, 이스라엘 텔아비브가 참여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다. 세계하천·호수·습지학회는 1923년 설립됐으며, 육수학(陸水學) 분야 최고의 역사와 명성을 자랑한다.

호수나 강에서 일어나는 물리·화학적 반응과 생물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연구하고 지구온난화, 부영양화, 오염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

서 열리게 되며, 육수학 분야 국내외 전문가 1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016년 6월 환경부로부터 물 순환 시범도시로 선정되는 등 하천과 호수생태를 가꾸고 보전하려는 노력과 성과를 세계 전문가와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행사를 공동으로 유치한 한국하천호수학회는 1967년 설립돼 내년에 50주년을 맞는다.

하천, 호수, 습지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로 지난 4년간 대회 유치를 위해 광주시, 광주관광컨벤션뷰로와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행사를 계기로 시민들이 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좋은 환경을 물러줄 수 있도록 물 순환 체계 개선, 광주전 복원, 호수생태원 관리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달빛동맹' 광주·대구시 국비확보 공조

광주·대구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윤장현 시장, 실국장 총동원령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대구시와 국비확보 공조에 나서고, 이번 주 실·국장 총동원령이 내려져 중앙부처 및 정치권 접촉에 나선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오는 10일 휴가를 취소하고 서울서 국비확보를 진두지휘하며 정치권·정부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넓혀갈 예정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대구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의 지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만나 양 지역 국회의원과 연석회의를 통해 영호남이 공동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책 모색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간담회는 광주에서 윤 시장과 김동철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등 7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대구에서는 권 시장과 윤재옥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9명,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광주·대구 공동현안사업과 지역별 현안사업, 국비지원사업 등이 논의된다.

두 지역의 공동현안사업은 ▲미래형자동차산업 선도도시 기반구축 ▲대구-광주

철도건설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등 3건으로,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광주 현안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옛 광주교도소 부지 무상양여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2단계) 조성사업으로 정치권에 협조를 구하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법령 제정이 필요한 ▲에너지밸리 조성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내면세점 설치 관련 특별법 개정 지원도 건의한다.

이밖에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투자진흥지구지원시설 구축 등 20여건의 국비사업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윤 시장은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은 과거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예산과 정책을 연대하는 예산동맹, 경제동맹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두 도시의 국회의원과 함께 두 지역의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시장은 8~10일 3일 동안 실·국장 등 간부들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렸다. 간부들이 정부 부처별, 국회 상임위별로 주요 현안사업을 나눠 역할을 분담해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집중 설명토록 했다.

광주시는 앞서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을 초청,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예산·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수교육 800기 달성 강화

5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특수전교육단에서 열린 '공수기본교육 800기 달성 강화 및 수료식'에서 역대 교관 및 특전부사관 후보생들이 강하를 하고 있다.



KTX 광주역 진입 촉구 11만명 서명부 전달

광주시 북구, 국토부에

광주시 북구는 호남선 KTX 광주역 진입을 촉구하는 11만인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송광문 북구청장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5일 국토부를 방문, 강호인 국토부장관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면담을 통해 KTX 광주역 진입을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전했다.

북구는 KTX 광주역 미진입으로 광주시의 도심 공동화와 상권쇠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북구는 지난 7월11일부터 2주일간 서대선역 경우 익산역 종점 호남선 KTX

를 광주역까지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범시민 10만인 서명운동을 펼쳐, 11만 2672명의 서명을 받았다.

북구는 연말에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함에 따라 철도운영계획이 이달 재수립 절차를 밟는 시점에 KTX 광주역 재진입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을 국토부에 전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펼쳤다.

북구는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철도운영계획에 서대선역과 익산역을 잇는 KTX가 김제·장성역을 거쳐 광주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안이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장성군, 김제시와 공동대응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016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 2016. 8. 8(월) ~ 18(목)
 전형일시 2016. 8. 22(월) 오후 2:00
 합격자 발표 2016. 8. 24(수) 오전 10:00 예정
 등록금 납부 2016. 8. 24(수) ~ 25(목)

▶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과정 (수업연한)	학 과	모집 정원
일반대학원	석사(4학기)	신학과(Th.M.)	0
		유아교육학과(M.Ed.)	0
신학대학원	석사(6학기)	신학과(M.Div.)	0
음악대학원	석사(4학기)	실용음악학과(M.A.)	0

사랑과 감사의 62년 1954~2016 믿음과 초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2016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생 모집

지원 자격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자격을 해당되는 자(단,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 2학년 0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및 30학점 이상 취득자
 - 3학년 0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및 60학점 이상 취득자

입학문의 ▶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학자로 36

청(靑)소년 예비전문가를 위한 다같이·즐겁게·모이자·모이자·모이자

교육일시 ▶ 오픈강의(1회) : 2016년 9월 24일(토) 14:00 ~
 ▶ 청다락방 본강의(4회) : 2016년 10월 8일(토) ~ 10월 29(토) 매주 토요일 14:00~

장 소 광신대학교 국제관 1층 국제회의실

수 강 료 무료

신청문의 ▶ 오픈강의(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학생상담센터 062)605-0903 E-mail : flyhig132@naver.com
 ※ 2016. 9. 8(목)까지(신청기한임수)
 ▶ 청다락방 본강의(4회) : 평생교육원 062)605-1112, 1063

강의일정 ▶ 오픈강의 : 2016. 9. 24(토) 14:00 ~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3시간) 수료증 발급

▶ 청다락방

회기	일 정	주 제	강사
1	10월 8일	청소년정서코칭	조영미
2	10월 15일	청소년은 꿈쟁이! & 오투이!	안창현
3	10월 22일	청소년 게임 놀이치료	임은경
4	10월 29일	미술치료의 실제	이정은

▶ 주 최 : 광신대학교 상담치료대학원 청소년상담지도학과
 ▶ 주 관 :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